

광주시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백신 수급·접종 관리·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사전 준비

전남 인구 대비 17.3% 31만9천여명 진단검사 이뤄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보건당국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선제적인 검사로 감염자 조기발견,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고, 광주시 역시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1일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준비 상황과 방향에 맞춰 접종시기, 접종대상, 접종방식 등을 고려한 예방접종 사전 준비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추진단’을 꾸린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예방접종관리반’과 ‘이상반응관리반’으로 시 감염병관리과 내에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의 백신 도입시행 준비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예방접종관리반은 접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을 관리하며 백신수급, 유통 관리, 접종시스템 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반응관리반은 접종 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해 피해 보상 등을 추진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까지 31만9천600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됐다. 이는 전남 전체인구의 17.3%에 해당되는 수치다. 특히 전남도는 전국 요양기관 등에서

집단감염이 여러 차례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7만4천600여건의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순천시와 광양시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와 나주시에 소재한 장애인시설 종사자 등 감염자 3명을 조기 발견해 추가 감염을 막아낼 수 있었다. 또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경북 상주B TJ 열병센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28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사회로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정겨울·임후성 기자

金지사 “기업 일하기 좋은 여건 조성 역량 집중하겠다”

대양산단 해조류연구센터 방문
전남 김산업 세계화 방안 논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김 수출 증대에 앞장선 목포 대양산단 대상㈜ 해조류연구센터를 찾아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의 방문은 김 시장 확대를 위해 품질 개선과 수출 제품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블루수산물야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이상민 대상㈜ 해조류연구센터장을 격려하고 전남 김 산업의 세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정원, 미원 등으로 알려진 대상(주)은 2017년 원물 주산지인 전남에 김의 맛과 품질을 책임지는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2019년 자회사 (주)정풍의 목포공장도 대양산단에 270억원 규모로 건립해 정규직 5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 효자 기업이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상(주) 해조류연구센터를 방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김 가공공장인 (주)정풍의 조미김 가공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역대급 한파’ 피해 속출…“오늘까지 춥다”

무안 양식장 송어 1만여마리 폐사…농작물 냉해·수도관 동파도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 폐사와 농작물 냉해,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 광주·전남지역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소재 양식장 1곳에서 송어 1만여마리가 집단 폐사(재산 피해 1천900만원)했다. 이는 지난 6일 시작된 한파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첫 양식장

피해다. 해당 양식장은 모두 7만마리의 송어를 키우고 있으며 수면이 다 녹지 않은 상황에서 폐사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전남도에는 27개 농가 132동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접수됐다. 구례 감자 재배 24농가 128동 10ha, 나주 딸기 농가 1곳 2동 0.2ha, 고추 재배 농가 2곳

0.2ha 등이다. 전남도는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녹차·유자·배추·양파 등 작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 47건, 전남 253건의 수도관·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신안 가거도와 진도군 4개 읍·면 4천638세대가 단수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남도는 가거도에 식수 100박스, 진도에는 식수 7만8천병과 비상급수차 5대를 지원하고 긴급 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례 성삼재 16km, 진도 두목재 1.5km, 대명리조트 진입로 1km 등 도내 3개소에 대한 교통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한파는 12일 낮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곡성·화순에는 한파경보가, 광주와 나주·담양·구례·장성·보성·순천·영암·함평·영광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3도 가량 낮아 춥겠다”며 “13일부터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임후성 기자

道, 호남고속철 2단계 지원협의체 가동

오늘 첫 회의…도·시군·국가철도공단 협력 강화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목포 구간의 신속한 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2일 첫 협의회를 갖는다. 전남도가 주관할 협의체는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 경유지인 나주시·함평군·무안군 건설 관련 과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안에 따라 7개 공구의 감리회사도 함께하게 된다.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에서 열릴 협의회에선 사업 시행기관인 철도공단의 현안·애로사항 청취 후 용지 보상과 민원사항,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에 대한 지원 대책 협의가 이어진다. 공사 초기인 올해 매월 협의회를 갖고 2022년 이후엔 격월로 진행해 사업 완료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총 77.8km로 광

주송정부터 나주 고막원 26.4km의 기존 선 고속화는 2019년 6월 이뤄졌다. 새로운 철도인 고막원부터 목포 임성까지 44.1km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지난해 말 시공회사를 선정해 착공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무안공항의 교통 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충남 이남 지역은 물론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안공항에 신설될 ‘공항역’도 공항과 동선을 일체화시켜 이용객의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원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해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객 교통 편의 개선과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道, 올해부터 시·군 주도 R&D 발굴 지원

전남도는 11일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5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R&D 투자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시·군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협력해 과학기술 R&D로 미래사회 및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계획한 사업이다. 그동안 시·군에선 R&D 이슈 발굴 및 기획·관리 등의 경험 부족으로 R&D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기획을 위한 자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13개 시·군으로부터 24개 과제를 모집했다. 이 중 시·군의 산업 특성, 비교우위 자원 등에 기반을 둔 지역혁신 R&D사업 발굴을 희망한 5개 시·군 총 5개 사업을 선정하고 각각 기획비 3천만원을 지원기로 했다. 각 지역별로 ▲여수시 ‘실버헬스케어 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 ▲구례군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산수유 등 기능 연구·치유식품산업 육성’ ▲해남군 ‘단호박 기능성 소재 연구·전분 가공 기술 실증시험센터 구축’ ▲강진군 ‘농촌 맞춤형 공기정화기술·플랫폼 개발’ ▲영광군 ‘스마트양식 융복합 기자재 실증 신뢰성 평가센터 유치 기획’ 등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출생육아수당’ 신청하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올 1월부터 적용

광주시는 11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광주출생육아수당’이 지난 1일부터 적용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출생육아수당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으로 지급 대상은 출생축하금은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다. 출생축하금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출생신고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계만 지원된다. 아이가 1월 이후 출생하

고 시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수당은 1월1일 기준 24개월 이하인 아동이면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시 별도 육아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된다. 출생육아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1월 대상자는 거주지 등 확인을 통해 2월에 지급된다. /정진탄 기자

◀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 상담 ◀

철저한 편의 법적자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